**왕상1915 Note**

**하사엘 / 호크마 주석**

성 경: [왕상19:15]주제1: [호렙 산상의 엘리야]주제2: [남은 자 칠천]

▶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–

하사엘(Hazael)자는 본래 아람 왕 벤하닷(Benhadad)의 군대장관이다.

그러나 그는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후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괴롭혔다(왕하 8:13-29;13:1-3).

그러므로 본절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이스라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다.

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엘리야가 언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는가이다.

실상 16절까지에서 언급되는 하사엘, 예후, 엘리사 중 그 누구도 엘리야의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(왕하8:12-15;9:1-10).

그러나 이 난점은 '기름부음'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폭넓게 해석할 때 해결된다. 즉 여기서 '기름 붓다'라는 말은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것(시105:15;사 45:1)이나 따로 구별하는 것(출 30:26)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이다.